

Choice-Induced Judgment Change in Preference-Excluded Perceptual Decision Making

Hajin Kim¹, Soohyun Cho^{1*}

¹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CIPC) refers to a change in one's preference after making a choice. The present experiment is the first to examine whether a similar phenomenon occurs after non-preference based choices, such as in perceptual judgments. In the first phase, participants rated the perceived degree of morphing for each face stimulus. Next, two faces that had been rated similarly were presented side by side a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choose the face which seemed to have been morphed to a greater degree. Lastly, participants re-evaluated the perceived degree of morphing for each face agai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ings of chosen faces increased whereas those of rejected faces decreased.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CIPC may not be limited to preference-based choices, but may be generalized to non-preference based decision making as in perceptual judgments and choices.

Keywords: choice-induced judgment change, 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decision making, cognitive dissonance, free-choice paradigm

1차원고접수 22.08.19; 수정본접수: 22.11.20; 최종게재결정 22.12.23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and the use is non-commercial.

판단과 의사결정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편향(bias)을 보이기도 한다. 일례로, 선택 후 선호 변화(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이하 CIPC)는 의사결정 후 자신이 선택한 대상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는 반면, 선택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Chen & Risen, 2010; Izuma et al., 2010; Voigt, Murawski, Speer, & Bode, 2019). CIPC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인지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신념, 행동, 태도(attitude) 등 인지적 요소들 간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 한다.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 가능한 인지적 요소를 바꾸어 인지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 태도와 일치하도록 행동을 바꾸거나, 행동에 맞추어 태도를 바꾸어 인지부조화를 해소한다(Ariely & Norton, 2008; Brehm,

1) 심리학에서 태도(attitude)는 대상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평가적인 판단으로, 선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많은 선행 연구에서 주로 선호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졌다(Agarwal & Malhotra, 2005; Eagly & Chaiken, 2007; Jain,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호 뿐만 아니라 선호가 배제된 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judg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NRF-2021R1F1A1054858), 2020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조수현,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soohyun@cau.ac.kr

1956; Brehm & Wicklund, 1970; Gerard & White, 1983; Vroom, 1966). 이숙 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에서는 여우가 높은 나무에 달린 포도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포도는 맛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위로한다. 즉, 포도를 먹고 싶은 태도와 현실이 부합하지 않자 여우는 태도를 바꾸어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한 것이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CIPC 역시, 동일한 정도로 선호하는 두 옵션 중 하나만 선택하는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린 후,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동(즉, 선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태도(즉, 선호)를 강화시키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 및 생후 14개월 정도의 영아뿐만 아니라 원숭이에게도 관찰되었으며, 향기, 장난감, 사탕 등 다양한 자극을 이용한 실험 연구들을 통해 반복 검증되었다(Coppin, Delplanque, Cayeux, Porcherot, & Sander, 2010; Egan, Bloom, & Santos, 2010; Silver, Stahl, Loiotile, Smith-Flores, & Feigenson, 2020).

지금까지 선택과 관련한 태도 변화는 주로 선호 또는 가치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었다. CIPC를 관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유선택 패러다임(free-choice paradigm)’에서는 평정(rating)과 선택(choice) 과제를 교대로 두 번 반복한다(Chen & Risen, 2010).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선호에 기반한 선택과 비교하기 위한 통제 조건으로 선호가 배제된 의사결정(e.g., 더 둥근 얼굴형 선택) 과제를 사용하였는데, 통제 조건에서는 CIPC가 나타나지 않았고, 선호 기반 선택 과제에서만 CIPC가 관찰되었다(Nakamura & Kawabata, 2013; Hwang & Cho, 2020).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통제 조건의 평정 과제에서 자극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평정과 선택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Hwang & Cho, 2020).

본 연구에서는 평정과 선택 과제의 기준을 일치시킨 자유선택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선호가 배제된 의사결정(지각적 판단) 시에 CIPC와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호가 배제된 선택 이후 선택(혹은 기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각적 판단이 편향되는 현상이 관찰된다면, CIPC를 선택 후 ‘판단’ 변화(Choice-induced judgment change, 이하 CIJC)라는 개념으로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만 18세 이상 성인 4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평균 22.5세,

표준편차 2.1, 남녀 각 20명). 참가자는 실험자로부터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실험에 끝까지 참여하였고,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연습 시행, 사후 설명 단계까지 포함하여 실험에는 약 45분이 소요되었다. 사후 설명에서 과제 수행 중 본인의 선호가 많이 개입되었다고 보고한 2명과, 일부 시행에서 지시문과 반대로 응답했다고 보고한 1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37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극

Adobe Photoshop을 사용해 모핑(morphing)한 아시아인 흑백 얼굴 사진 240개가 사용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얼굴 사진²⁾과 Chicago Face Database의 무표정(neutral) 얼굴을 선별해 만든 남녀 얼굴 사진 각 120개로 구성된다(Ma, Correll, & Wittenbrink, 2015). 모든 얼굴의 이마와 턱 위치를 통일해 얼굴의 크기를 조정했으며, 사진의 크기는 350*400 픽셀(pixel)이었다. 모든 참가자에 대해 이성의 얼굴 사진만 사용하였다.

실험 설계

본 실험에서는 Chen & Risen(2010)³⁾을 비롯한 여러 선행 연구를 참고해 RCRC 구조의 자유선택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두 가지 참가자 내 조건을 사용하였다(Figure 1; Chen & Risen, 2010; Enisman, Shpitzer, & Kleiman, 2021). 실험 조건은 ‘1차 평정, 1차 선택, 2차 평정’ 과제(이하, RCR 조건)로, 통제 조건은 ‘1차 평정, 2차 평정, 2차 선택’ 과제로 구성되었다(이하, RRC 조건).

절차

본 실험은 평정과 선택 과제가 교차로 반복되는 RCRC 구조로 진행되었다(Figure 1).

1차 평정(Rating 1). 각 시행에서 화면 중앙에 응시점이 500ms 동안 나타난 후, 얼굴 사진이 하나씩 제시되었다. 1.5

2) SCUT-FBP5500 Dataset(Liang, Lin, Jin, Xie, & Li, 2018)에서 남녀 아시아인 약 2000명의 얼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모핑하였다(Hwang & Cho, 2020).

3) Chen & Risen(2010)은 CIPC가 평균으로의 회귀로 인한 통계적 현상이 아닌, ‘선택’에 기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제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차평정-1차선택-2차평정-2차선택’ 순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RCRC 구조의 자유선택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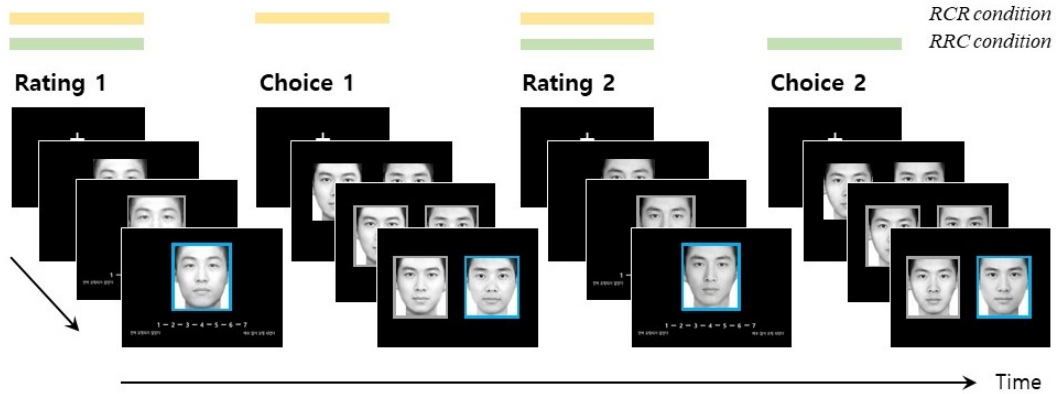


Figure 1. Experimental conditions and procedure. The yellow and green bars on top represent the two conditions – RCR (yellow); RRC (green) – used for data analysis. Example trials for each task are shown in the order of the free-choice paradigm.

초 후 알림음과 함께 사진 둘레에 회색 테두리가 둘러지고, 아래에 척도가 제시되면 참가자는 사진의 지각된 모핑 정도를 평정(더 많은 얼굴 사진이 합성에 사용된 것처럼 보일수록 모핑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⁴⁾하였다. 평정은 7점 척도(모핑에 사용된 사진이 적어 보일수록 1번, 많아 보일수록 7번을 선택)로, 3초 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후에는 사진의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120시행으로 구성되었다.

1차 선택(Choice 1). 각 시행에서 먼저 중앙에 응시점이 500ms 동안 제시된 후, 앞선 1차 평정 과제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은⁵⁾ 두 얼굴 사진이 짝지어 3.5초 간 제시되었다. 이후 알림음과 함께, 사진 둘레에 회색 테두리가 나타나면 3초 이내에 두 사진 중 지각된 모핑 정도가 더 심하다(모핑에 사용된 사진의 수가 더 많다)고 판단되는 얼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왼쪽 사진은 S키, 오른쪽 사진은 K키를 눌러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응답 후에는 선택된 사진의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30시행으로 구성되었다.

2차 평정(Rating 2). 1차 평정 과제에서와 자극 및 절차가 동일하였다.

2차 선택(Choice 2). 1차 선택과 동일한 절차로, 제시되지 않은 자극 60개가 사용되었다.

4) 자극의 모핑 정도는 모핑에 사용된 사진의 개수와 비례하지 않았고, 실제 모든 자극의 모핑 정도는 유사하였다. 즉, 모핑 정도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실험 당시 참가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5) 만약 동점을 받은 사진의 개수가 홀수여서 짝을 맞출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평정 점수가 1점 차이 나는 사진과 짝을 이루도록 하였다.

측정 변인

평정 변화량은 두 번의 평정을 통해 각 얼굴 자극의 모핑 정도에 대한 평정 값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2차 평정 점수에서 1차 평정 점수를 뺀 값으로 산출하였다. 평정 변화량의 절대값이 큰 자극일수록 1차 평정과 2차 평정 간에 모핑 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정 변화량이 양수이며 그 값이 클수록 1차 평정 대비 2차 평정에서 사진이 더 많이 모핑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선택한 얼굴의 평정 변화량에서 선택하지 않은 얼굴의 평정 변화량을 뺀 값(spreading of alternatives, 이하 SOA)을 종속 변인으로 사용하였다(Chen & Risen, 2010; Izuma & Murayama, 2013; Luo & Yu, 2017; Hwang & Cho, 2020). SOA는 선택 혹은 기각 여부에 따른 태도 변화의 정도와 방향성을 나타낸다. 즉, SOA 값이 클수록 CIJC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결 과

실험 조건과 선택 여부가 평정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평정 변화량에 대한 2*2 반복측정 분산분석(요인 1: 실험 조건, 요인 2: 선택 여부) 결과, 실험 조건과 선택 여부의 상호작용과($F(1,36)=32.52, p<.01$), 선택 여부의 주효과($F(1,36)=29.96, p<.01$)가 유의하였다. 과제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36)=2.35, p=.13$). 또한, 실험 조건별로, 선택 여부에 따른 평정 변화량 차이의 유의성을 살피기 위한 단일표본 및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Figure 2A). 분석 결과, RCR 조건에서 선택한 얼굴의 평정 점수는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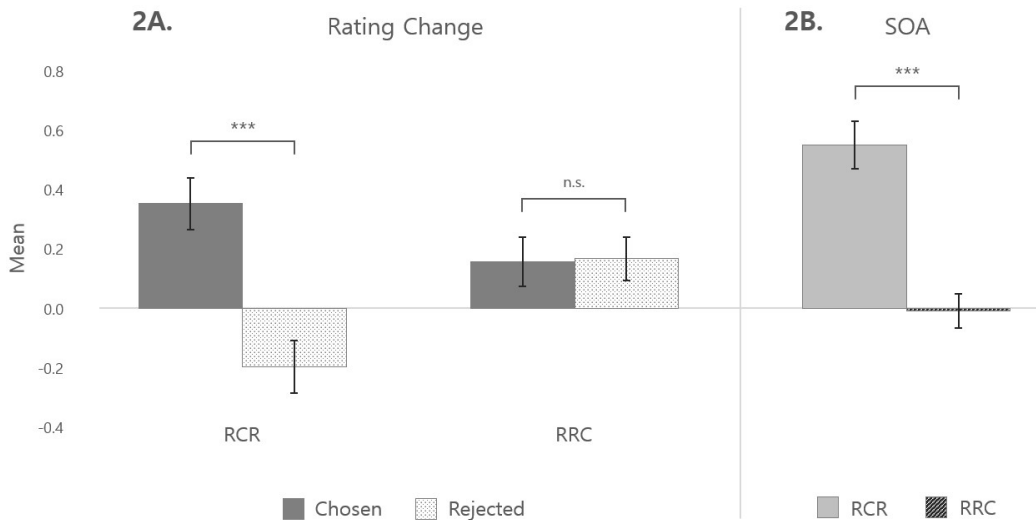


Figure 2. Results of the paired samples t-test manifesting the CIJC effect. A. The difference in rating change between chosen vs. rejected faces was significant in the RCR ($***p<.01$), but not in the RRC condition ($p>.1$). B. The difference in SOA between RCR and RRC conditions was significant ($***p<.01$).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the mean.

고($t(36)=4.06, p<.01$), 선택하지 않은 얼굴의 평정 점수는 감소하는($t(36)=-2.22, p<.05$) CIJC가 관찰되었으며, 선택 여부에 따른 평정 변화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6)=6.87, p<.01$). 한편, 통제 조건인 RRC에서는 선택 여부에 따른 평정 변화량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36)=-.18, p=.86$).

조건에 따른 SOA 차이 비교

본 연구에서 관찰된 CIJC 현상이 평균으로의 회귀로 인한 통계적 현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선택'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조건(RCR, RRC) 간 평정 변화량의 차이(SOA)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Figure 2B). 분석 결과, RCR 조건의 SOA($M=.55, SD=.49$)가 RRC 조건의 SOA($M=-.01, SD=.35$)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t(36)=5.70, p<.01$).

논 의

본 연구는 주관적 선호가 배제된 의사결정 맥락에서도 CIPC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지, 즉, 기존의 CIPC가 CIJC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모핑 수준'에 대한 지각적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자유선택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두 얼굴 중 더 많이 모핑된 것으로 판단한 얼굴에 대해 2차 평정에서 지각된 모핑 정도를 더 높게 평정하고, 더 적게 모핑된 것으로 판단한 얼굴에 대해서는 2차 평정 시 지각된 모핑 정도를 더 낮게 평정하였다. 이는

선택한 얼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기각한 얼굴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는 CIPC가 단지 선호에 기반한 선택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지각적 판단의 영역으로도 일반화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는 지각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 후에도 선택한 대상에 대한 판단이 선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편향되는 현상(CIJC)을 최초로 보고한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선행 연구에서 선호가 배제된 의사결정 시 CIJC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평정과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Nakamura & Kawabata, 2013; Hwang & Cho, 2020). 예를 들어, Nakamura & Kawabata(2013)에서와같이 평정 과제에서는 호감에 기반한 판단을 하고, 선택 과제에서는 지각적 기준에 더 부합하는 얼굴을 선택한다면, 평정과 선택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선호가 배제된 지각적 판단에 기반한, 지각된 모핑 정도라는 같은 기준으로 평정과 선택을 하도록 하고, 선호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사후 설명에서 과제 수행 중 선호가 개입되었다고 보고한 참가자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실험 설계에 기반해, 기존의 CIPC가 지각적 판단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이 더 광범위한 판단의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CIPC, 나아가 본 연구에서 관찰한 CIJC의 인지, 정서적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기억이 CIPC를 포함한 CIJC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밝혀야 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선택은 기억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잘 기억하거나(Mather, Shafir, & Johnson, 2003; Stoll Benney & Henkel, 2006), 선택 후 시간이 지나면 선택 당시에 실제로 느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고 기억이 미화되기도 한다(Rodriguez & Strange, 2014). 즉, 이러한 기억 편향이 선행 연구의 CIPC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을 기억했을 때 CIPC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Chammat et al., 2017; Salti, El Karoui, Maillet, & Naccache, 2014),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가 공존한다(Hwang & Cho, 2020; Lieberman, Ochsner, Gilbert, & Schacter, 2001). 따라서, 기억이 CIPC를 포함하는 CIJC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CIPC, CIJC가 의사결정 이후에 발생하는지, 도중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적 대립이 존재한다. 인지부조화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는 전자의 기전을 가정하나, 최근 후자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Lee & Daunizeau, 2020; Voigt, Murawski, Speer, & Bode, 2019). 이처럼, CIJC의 기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CIPC에는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선조체(striatum), 해마(hippocampus) 등 가치 체계(value system)와 관련된 뇌 영역이 관여된다고 보고되었다(Schonberg & Katz, 2020; Voigt, Murawski, Speer, & Bode, 2019). 본 연구에서 가치가 배제된 의사결정에서도 CIPC와 유사한 CIJC가 관찰됨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CIPC와 CIJC의 신경학적 기반을 비교해 두 현상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활용하여, CIJC 현상과 관련해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References

- Agarwal, J., & Malhotra, N. K. (2005). An integrated model of attitude and affect: Theoretical foundation and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 483-493.
- Ariely, D., & Norton, M. I. (2008). How actions create - not just reveal - preference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2, 13-16.
- Brehm, J. W. (1956). Postdecision changes in the desirability of alternative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384-389.
- Brehm, J. W., & Wicklund, R. A. (1970). Regret and dissonance reduction as a function of postdecision salience of disson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1-7.
- Chammat, M., Karoui, I. E., Allali, S., Hagege, J., Lehongre, K., Hasboun, D., ... & Naccache, L. (2017). Cognitive dissonance resolution depends on episodic memory. *Scientific Reports*, 7, 41320.
- Chen, M. K., & Risen, J. L. (2010). How choice affects and reflects preferences: revisiting the free-choice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573-594.
- Coppin, G., Delplanque, S., Cayeux, I., Porcherot, C., & Sander, D. (2010). I'm no longer torn after choice: How explicit choices implicitly shape preferences of odors. *Psychological Science*, 21, 489-493.
- Eagly, A. H., & Chaiken, S. (2007). The advantages of an inclusive definition of attitude. *Social Cognition*, 25, 582-602.
- Egan, L. C., Bloom, P., & Santos, L. R. (2010). Choice-induced preferences in the absence of choice: Evidence from a blind two choice paradigm with young children and capuchin monkey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204-207.
- Enisman, M., Shpitzer, H., & Kleiman, T. (2021). Choice changes preferences, not merely reflects them: A meta-analysis of the artifact-free free-choice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 16-29.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ard, H. B., & White, G. L. (1983). Post-decisional reevaluation of choice alterna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65-369.
- Hwang, Y., & Cho, S. (2020). The Influence of Choice Attributes on Choice Induced Preference Change.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32, 189-195.
- Izuma, K., Matsumoto, M., Murayama, K., Samejima, K., Sadato, N., & Matsumoto, K. (2010). Neural correlates of cognitive dissonance and 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 22014-22019.
- Izuma, K., & Murayama, K. (2013). 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in the free-choice paradigm: A critical methodological

-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4, 41.
- Jain, V. (2014). 3D Model of attitud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s*, 3(3), 1-12.
- Lee, D., & Daunizeau, J. (2020). Choosing what we like vs liking what we choose: How 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might actually be instrumental to decision-making. *PloS One*, 15, e0231081.
- Liang, L., Lin, L., Jin, L., Xie, D., & Li, M. (2018, August). SCUT-FBP5500: A diverse benchmark dataset for multi-paradigm facial beauty prediction. In *2018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CPR)* (pp. 1598-1603). IEEE.
- Lieberman, M. D., Ochsner, K. N., Gilbert, D. T., & Schacter, D. L. (2001). Do amnesics exhibit cognitive dissonance reduction? The role of explicit memory and attention in attitude change. *Psychological Science*, 12, 135-140.
- Luo, J., & Yu, R. (2017). The spreading of alternatives: Is it the perceived choice or actual choice that changes our preferenc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30, 484-491.
- Ma, D. S., Correll, J., & Wittenbrink, B. (2015). The Chicago face database: A free stimulus set of faces and norming data. *Behavior Research Methods*, 47, 1122-1135.
- Mather, M., Shafir, E., & Johnson, M. K. (2003). Remembering chosen and assigned options. *Memory & Cognition*, 31, 422-433.
- Nakamura, K., & Kawabata, H. (2013). I choose, therefore I like: preference for faces induced by arbitrary choice. *PloS One*, 8, e72071.
- Rodriguez, D. N., & Strange, D. (2014). Dissonance-induced false memories: Evidence from a free-choice paradigm.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26, 571-579.
- Salti, M., El Karoui, I., Maillet, M., & Naccache, L. (2014). Cognitive dissonance resolution is related to episodic memory. *PloS One*, 9, e108579.
- Schonberg, T., & Katz, L. N. (2020). A neural pathway for nonreinforced preference chang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4, 504-514.
- Silver, A. M., Stahl, A. E., Loitile, R., Smith-Flores, A. S., & Feigenson, L. (2020). When not choosing leads to not liking: Choice-induced preference in infancy. *Psychological Science*, 31, 1422-1429.
- Stoll Benney, K., & Henkel, L. A. (2006). The role of free choice in memory for past decisions. *Memory*, 14, 1001-1011.
- Voigt, K., Murawski, C., Speer, S., & Bode, S. (2019). Hard decisions shape the neural coding of preferences. *Journal of Neuroscience*, 39, 718-726.
- Vroom, V. H. (1966). Organizational choice: A study of pre-and postdecision process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 212-225.

선호가 배제된 지각적 판단에서 관찰된 선택 후 판단 변화 현상

김하진¹, 조수현¹

¹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선택 후 선호도 변화(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CIPC)는 의사결정 이후 대상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는 지각적 판단, 즉 선호가 배제된 선택 후에도 CIPC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최초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 평정 단계에서 참가자는 각 얼굴 자극의 지각된 모핑(morphing) 정도에 대한 평정을 내렸다. 이후 선택 단계에서는 평정 단계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은 두 얼굴을 나란히 제시하고, 참가자에게 둘 중 더 많이 모핑된 얼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평정 단계에서는 참가자가 각 얼굴의 지각된 모핑 정도에 대해 재평정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참가자가 선택한 얼굴의 평정 점수는 증가한 반면, 선택하지 않은 얼굴의 평정 점수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IPC로 알려진 현상이 선호에 기반한 선택에 국한되지 않고, 선택 후 판단 변화(Choice-Induced Judgment Change, CIJC) 현상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선택 후 판단 변화, 선택 후 선호도 변화, 의사결정, 인지부조화, 자유선택 패러다임